

#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연극을 통해 따뜻한 완주를 꿈꾸다 '이종화' 배우

창작극회에서 연극 활동하고 있는 이종화라고 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창작극회라는 연극단체에서 연기도 하고 있고 스태프 일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사무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극단의 살림 이것저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극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연극을 시작한 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4살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에 기린극회라는 연극동아리가 있습니다. 연극이 하고 싶고, 영화 연기에 관심이 있어서 영화를 보면 성대모사를 하고, 역할을 따라 하고 연기를 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대 후 복학하고 기린극회에 들어가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복학생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아서 잠깐 포기했었습니다. 전북대학교에 평생 지도교수제가 있는데 교수님께 연극을 하고 싶다고 말씀했더니 교수님 지인이었던 창작극회 대표님을 소개를 받았습시다. 그때 창작극회에 들어오고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연극을 한지는 10년 정도 되어가는데 많은 작품을 참여했습니다.

많은 작품 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은 서른 살 때 2인극이었는데 함께한 친구와 공동연출로 작업을 했습니다. 연극 제목은 “가정식백반 맛있게 먹는 법”이라고 특이한 게 소극장 안에서 연기를 하면서 가정식백반을 직접 만들고 요리를 하고 소극장 안에서 가스레인지도 직접 설치하고, 물도 나오게 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동연출했던 그 작업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연극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극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극을 한번 보시게 되면 헤어날 수 없는 현장감 때문에 다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데

연극은 현장에서 직접 관객으로서 배우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배우가 열정적으로 연기할 때 미세한 떨림이라든지 땀이 흐른다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그 현장성 하나만으로도 다른 장르에 비해 연극은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완주에서 새로운 연극을 만드신다고요?

2005년도부터 삼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학교에 왔다 갔다 통학만 하고 극단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주에서 계속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 완주의 문화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극단생활에만 관심이 있었지, 전주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연극에만 관심이 있었고 연극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연극 활동을 하다 보니 연극작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부딪히는 작업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새로운 완주사람들과 해보면 저도 좋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삶의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주에서 내가 지금까지 전주 창작극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쌓아왔던 에너지를 완주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완주에서 어떤 무대를 그리시나요?

연극만이 아니라 공연을 할 수 있는 완주의 전용 극장이 생긴다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

다. 예술가들이 공연하고, 공연을 보기 위해 주민들이 찾아오고 완주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전용 극장이 생긴다면 더 많은 예술가가 완주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고 극장 하나를 통해서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 따뜻한 완주를 만드는데 큰 정점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

연기, 연극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본업으로 연극을 하는 사람입니다. 연기나 연극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삼례문화이장”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지금 채널에 친구가 딱 7명 친구 추가 해주셨는데, 많이 추가 해주시고 1:1 채팅창이 있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어떻게 하면 연기를 할 수 있냐요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삼례문화이장” 검색 꼭 부탁드립니다.

---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

철이 들고 보니 내가 사는 곳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혼을 불어 놓고, 저의 에너지를 나무며 함께 행복한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